

지역 경제 위기인데... 갈등 빛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

15년만에 경선... 정창선 현 회장·양진석 호원 회장 경합 투표권 획득 위해 회원사간 마찰 빚어져... 후유증 불가피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동적이고 혁신 마인드 갖춘 인물 필요

광주상공회의소 24대 회장 선거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양진석 (주)호원 회장이 경합하게 됐다. 선거 전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결국 15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논란과 갈등을 남기는 등 후유증이 예고된다. 특히 정 회장 측이 특별회비 '대량 납부'를 통해 선거권을 가진 상당수의 의원을 확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함께 보조를 맡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상의회장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올해 여단에 접어든 정 회장의 행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14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24대 회장 선거 후보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과 양진석 호원 회장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2006년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그룹 부회장(당시 금호산업 대표이사)

이 경선을 펼친 이후 15년 만에 경선을 치르게 됐다. 회장 선출 선거는 오는 18일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선출된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이 투표하는 방식이다. 광주경제계와 광주상의 안팎에서는 이미 정 회장의 당선에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 회장 측 회원사들이 100만원당 1표씩(회원사당 최대 50표) 얻는 특별회비 납부를 통해 다수의 의원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회원사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 후유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광주경제가 극심한 침체

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좌장' 역할을 맡아 화합을 도모해야 할 광주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정작 기업·업계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3대 회장 선거 당시 사전투표에서 1위를 한 양진석 회장의 양보로 광주상의 회장에 당선된 정창선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면서 불만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내 경제계를 이끌어갈 대한상의 회장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정 회장의 연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감지된다. 지난 3년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의 대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이를 대비한 움직임이 보이거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는 것도 지역경제계의 여론이다. 서울상의는 최 회장 취임에 따라 회장단을 새롭게 개편,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IT), 스타트업, 금융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합류시켰다. 이들과 함께 일을 도모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큰 변화 예고되고,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에 맞춰 지역 경제계를 이끌고 기업인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광주상의 회장의 역할"이라며 "시작 전부터 '돈 선거' 논란과 분열·갈등만 조장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 청년 한 달 생활비 64만원...6대 권역 최저

'부모·친지 찬스' 34.2%...전년비 1.1%P 상승 채무자 10명 중 1명 제2금융권·대부업 이용

지난해 호남·제주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64만원 가량으로, 6대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진 지역 청년 10명 중 1명 꼴로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제주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는 지난해 64만2523원으로, 전년(71만3769원)보다 10.0%(-7만1246원) 감소했다. 조사를 벌인 6개 권역 가운데 서울이 85만8379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84만4438원), 부

산·울산·경남(82만2360원), 대구·경북(81만7027원), 대전·충청·세종·강원(76만1808원), 광주·전라·제주(64만2523원)이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34.2%로, 대구·경북(3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33.1%보다 1.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청년 비중은 14.6%로, 전년(23.4%)보다 8.8%포인트 감소했다. 채무가 있는 호남·제주 청년들이 빚이 생긴 이유

는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이 39.9%로 가장 많았다. 학자금 마련(26.9%)과 창업 자금 마련(17.9%), 생활비 마련(11.1%), 기타(4.3%) 등이 뒤를 이었다. 빚을 진 지역 청년들의 81.2%는 은행에서 채무가 발생했고, 제2금융권(9.9%)과 대부업체(1.9%) 등에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제2금융권 비중(4.9%)에 비해서는 2배 늘었고, 대부업체(3.4%) 보다는 줄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매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6일부터 9월18일까지 8주 동안 지역 청년 468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조사를 벌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

2월 41억7천만 달러 28.6% 증가...가전·차·반도체 등 호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 로또복권 (제954회) | | | | | | | |
|----------------|-----------------|----|----|----|---------------|-----------|------|
| 당첨번호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 1 | 9 | 26 | 28 | 30 | 41 | 32 | |
| 등위 | | | | |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 6개 숫자일치 | | | | 2,478,795,900 | 10 | |
| 2 |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 | | | 64,551,977 | 64 | |
| 3 | 5개 숫자일치 | | | | 1,554,884 | 2,657 | |
| 4 | 4개 숫자일치 | | | | 50,000 | 132,057 | |
| 5 | 3개 숫자일치 | | | | 5,000 | 2,214,839 | |

14일 광주본부세관의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한 41억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8.1%와 올해 1월 10.4%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30.1% 증가한 12억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전제품은 냉장고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51.2% 증가했고, 자동차 등 수송장비 역시 43.5% 증가했다. 이밖에 반도체 36.2%, 타이어 1.9%, 기계류 1.4%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수출이 28.0% 증가한 29억1100만 달러로 주력 산업인 철강제품이 103.7% 증가한 데 이어 기계류 39.6%, 수송장비 29.6%, 화공품 21.3%, 석유제품 17.4% 등 순이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통시장 살리기 협약

광주신보, 비아5일장 등 4곳

광주신용보증재단 5개 지점과 관할 지역 전통시장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협력한다. 광주신보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지점 1제라시장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시행했다.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는 광주신보의 광산지점과 비아5일시장, 서구지점과 양동북개상가, 남구지점과 무등시장, 송정지점과 1913 송정역시장 등 4곳이다. 광주신보 영업점은 앞으로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장보기를 할 예정이다.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보증상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보증지원 정책에 반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디자이너 양말 신의세요 1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3층 '닥스' 양말매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본메종사의 양말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